

## 우고 론디노네, 형광빛 수녀와 수도승

April 29, 2022 | 윤혜정 국제갤러리 이사

Page 1 of 8

우고 론디노네에게 예술은 삶을 명상하도록 이끄는 유일한 매개다. 그가 사진으로 보낸 수녀와 수도승, 이들을 감싼 일몰의 풍경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고유한 '심적 풍경'으로 인도한다.



〈blue yellow monk〉, 2020, Painted bronze, 295x125x114.5cm.

삼청동에 생겨난 정체 모를 섬에는 수녀와 수도승 다섯이 기거한다. 기간은 상관없다. 어떤 종교에서든 수녀와 수도승은 존재하고, 이들은 본질과 구원을 위해 살 뿐이다. 신과 인간의 중재 역할을 하는 이들의 시선은 늘 속세가 아니라 내세 혹은 영원을 향해 있었고, 차안과 피안의 경계에서 움직여왔다. 신화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신에게 반항한 죄로 돌로 변하는 형벌을 받았지만, 수녀와 수도승은 돌이 되길 자처함으로써 크고 작은 신전을 마음에 쌓고 사는 현대인들을 직접 환대한다. 이들은 서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서 형형색색의 길을 만들어낸다. 자체로 출구가 되는 길을 걷다 보면, 사제복 사이로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당신을 붙잡을 수도 있다.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묵묵히 선 수녀와 수도승의 존재와 역할을 형이상학적으로 감각하는 것, 이들과 내가 선 이곳이 진정 경이로운 세계임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현대미술가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가 수녀와 수도승 〈nun스 앤 몽크스 (nuns+monks)〉를 서울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보낸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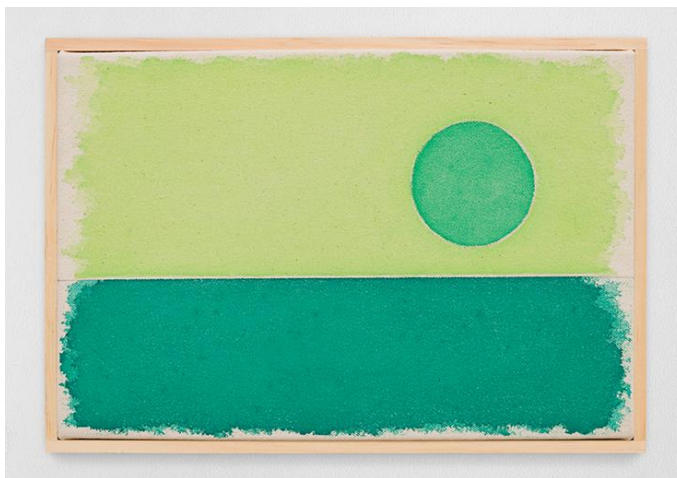
수녀와 수도승이 머물 미학적·경험적 공간을 위해, 작가는 전지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화이트 큐브의 지평선이 사라진 자리, 속을 감춘 회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시멘트를 전체에 발라 벽과 바닥, 천장의 경계를 없앤 시도는 제3의 시공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의 결과물이다. 시공간의 구분이 무의미한 이 진공의 공간은, 따라서 천상이거나 지하의 어디라 해도 무방하다. 전시장을 일종의 환경으로 바꾸어놓는 건 론디노네의 전매특허다. 지난 2015년에 그는 바로 이 공간에 인간 형상의 청석 조각들을 초대했고, 2019년에는 거대한 금빛 태양을 띄웠으며, 고대의 물고기들이 유명하는 심해를 연출했다. 수고로운 작업은 충분히 가치 있다. 작가의 우주 안에 스스로를 위치시킨 관객들이 익숙하지만 낯선 이 공간에서 비로소 자신의 내적 풍경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수십 년째 시적인 감각으로 그려내고 있는 인류세의 풍경 한가운데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작가가 아니라 관객이 존재한다.



〈yellow red monk〉, 2020, Painted bronze, 295x170.5x97cm.

문학적인 전시 제목 «넌스 앤 몽크스 바이 더 씨(nuns+monks by the sea)»는 2015년에 진행한 작가와의 인터뷰를 상기시켰다. 당시 그는 “이 화이트 큐브 공간을 본 순간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의 그림 <바다의 수도승(Monk by the Sea)>(1810)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우고 론디노네는 자타공인 낭만주의자의 후계자다. 자연을 내밀하게 관찰, 차용한 작업은 정신성을 이성과 지성 위에 둔 낭만주의에 대한 경배이며, 이에 대비되는 창, 문, 벽을 활용한 작업은 고립과 은둔 등 진화한 정신 세계에 보내는 찬사인 셈이다. 어쨌든 어두운 하늘과 흙빛 바다 앞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수도승 그림에서, 그는 무려 7년 후에 또 다른 전시의 제목을 차용했다. “인간의 자아와 자연의 세계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뿌리는 같다. 다만 등을 보이고 선 ‘바다의 수도승’이 무한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의 운명을 시사한다면, ‘바다의 수녀와 수도승’은 그 가려한 인간을 정면으로 감싸 안는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수녀와 수도승에게는 목소리가 없다. 이들은 침묵한다. 표정도 없다. 이들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름도 없다. ‘검은 머리의 초록 수도승(black green monk)’ 식의 서술일 뿐, 존재 각각을 호명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눈치 챌겠지만, 수녀와 수도승을 구별할 방도도 없다. 인간들은 습관처럼 눈앞의 대상과 머릿속의 고유명사를 연결시키고자 애쓰지만 역시 의미 없는 시도다. 중요한 건 작가가 탐구하는 그 미공의 지점에서 서로 대비되는 비가시적, 유동적인 에너지가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청석 조각은 현대적인 것과 원시적인 것의 기묘한 대조를, <더 선>에서는 그들의 태양과 나의 태양이 조화로운 대비를 이루었다. 오늘 이 섬에서 수녀와 수도승 역시 가장 인공적인 형광색 사제복으로 환복하고 서 있음으로써, 그들의 존재 자체를 연상시킨다. 신비롭고 엄숙한 동시에 획기적으로 현대적인 이들은 색채, 형태, 질량 등을 직감하게 하고, 현실이라는 외적 세계와 내적 구조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각성하게 하며, 이는 동시대에 통용되는 초월성, 우리를 울리는 현대적 숭고함이 무엇인지 사유하는 시간으로 이어진다.



<sechsterjulizweitausendundzwanzig>, 2020, Watercolor on canvas, artist's frame, 20.3x30.5cm.

“수녀와 수도승은 사신으로 우리에게 파견되었다. 이들은 인류가 줄곧 대면해온 고통과 고뇌, 그럼에도 살아야 하고 살고자 욕망하는 인간들의 희망과 절망의 지점을 고요하게 응시한다.”



〈neunzehnterfebruarzweitausendundzweiundzwanzig〉, 2022, Watercolor on canvas, artist's frame, 22.9x33cm.

우고 론디노네는 인간 혹은 인공과 자연의 대비와 모순을 보여주지만, 이 둘은 반목하기보다 연대하는 쪽에 가깝다. 그에게 자연이란 '핵심 자질 혹은 타고난 기질'이라는 의미의 라틴어나 '개입 없는 성장'이라는 그리스어 어원에 가깝다.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심연 혹은 '존재론적 발가벗음'의 상태,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하는 본질인 것이다. 나의 신체를 둘러싸고 정신을 보듬는, 인간 경험에 깊게 관여하는 무한의 환경을 상징적으로 칭하기도 한다. 더욱이 그에게 자연은 스스로를 가장 인간답도록 격려하는 존재였다. 에이즈가 세상을 덮친 1980년대, 그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자연으로부터 정신적 지지, 평안과 회복, 영감을 찾았다고 종종 말했다. “우리는 자연에서 신성함과 신성모독적인 것, 신비로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서로 공명하는 곳에 이르게 된다.”(〈xibtmagazine〉 中) 그가 예술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사실적인 것도, 아름답기만 한 것도 아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성 혹은 원형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연과 다시 만난다.

평생 예술을 통해 내면의 지도를 그려온 우고 론디노네의 작업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자연의 모티프들이 있다. 무지개, 나무, 태양, 구름, 달, 새, 물고기.... 특히 돌은 그에게 특별한 재료다. 형태적인 아름다움, 대지의 초월적 에너지, 아방가르드한 구조와 질감, 그리고 시간을 축적하고 응집하고 상징적인 사물이라는 점까지, 돌은 모든 작품을 잇는 근간이자 가장 훌륭한 시어가 된다. 돌을 활용한 그의 작품은 현대인들에게 시(詩)만큼이나 몰입적인 시공간을 선물한다. 록펠러센터 광장에 설치된 아홉 개의 청석 조각 <휴먼 네이처(human nature)>(2013)는 세상의 끝에서 온 전령이 되어 현대성을 남용하며 사는 인간들이 제 안에 내재한 원시성을 만끽하도록 했다.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사막에 대지미술과 팝아트를 결합한 색색의 돌탑 <세븐 매직 마운틴스(seven magic mountains)>(2016)는 미술사와 도시 역사에 길이 남을, 인간계와 자연계, 현대와 고대의 선연한 콘트라스트를 만들어내며 회자되고 있다. 중요하게는 이 두 가지 연작이 자연의 현신인 동시에 <넌스 앤 몽크스>의 전신이라는 점에서, 이 이름난 작품들은 또 다른 명분을 획득한다.

“청석 조각과 돌탑, 그리고 <넌스 앤 몽크스> 모두 원시적이면서도 동시대적 느낌을 자아내며, 시간과 삶의 순환에 대한 개념을 물리적으로 구체화한다. 돌이 거쳐온 생애를 암시하는,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생태변형적인 왜곡은 다채로운 색과 이에 따른 정서적 에너지로 새로 태어나며, 이는 잊지 못한 개방감을 선사한다. 취약함과 강인함이 혼재하는 이 세 작업군은 인간과 자연 간의 유대감을 표현한

다.”(<Mousse>, ‘Organic Accord: Ugo Rondinone’ 中) 특히 그에게 전시는 재료에 대한 탐구와 개선의 결과다. 언뜻 돌처럼 보이는 수녀와 수도승은 실제 돌이 아니다.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 맞춰보라는 식의 시험도 아니다. “사제복의 주름 같은 상징적인 면까지 표현할 수 있는” 석회암을 발견했지만, 연성인 이 돌로는 이상적인 크기의 작품을 구현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작가는 작은 돌을 3D 스캔해 확대, 청동으로 주물을 뜨고 도색해서 완성했다. “순전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고안한 방법이지만, 덕분에 우리는 진짜 돌과 돌을 표방한 인공 재료 사이에서, 본다는 것의 물리적 의미와 형이상학적 의미 사이에서 충분히 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수녀와 수도승은 지난 2020년 로마 산탄드레아 데 스카피스에 머물렀다.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건물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던 이들의 모습은 어떤 설명도 부족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조명 없이도 형형한 이들은 사방이 가로막힌 시대에서 역설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시간의 순환을 증명했다. 이들의 과거(작품의 궤적)는 곧 미래(예술의 가능성)다. 작금의 재앙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증폭되고 있는 2022년, 수녀와 수도승은 사신으로 우리에게 파견되었다. 이들은 인류가 줄곧 대면해온 고통과 고뇌, 그럼에도 살아야 하고 살고자 욕망하는 인간들의 희망과 절망의 지점을 고요하게 응시한다. 이들은 마법사도, 해결사도 될 수 없다. 그저 어떤 말도 어떤 제스처도 없이, 가장 먼 과거 혹은 미래의 어느 순간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과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아니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국제갤러리 서울점(K3) 우고 론디노네 개인전 «nuns and monks by the sea» 설치 전경.

지난 몇 년 사이 우고 론디노네는 전시를 보여주는 색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20년 여름에는 로마를 비롯해 베를린, 취리히 등 세 도시에서 동시에 전시를 열었다. 이듬해에는 뉴욕과 런던, 대서양을 관통하는 전시를 같은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 여정에는 늘 <넌스 앤 몽크스>와 <매티덕(Mattituck)> 연작이 함께했다. 현대미술을 주도하는 론디노네가 작품을 통해 의도한 '동시성'은 스스로의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지표다. 이와 함께 미술가로서 팬데믹이라는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자신의 발이 묶인 상황에서 의인화된 분신들을 적재적소에 보냄으로써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실로 느슨하게 연결한 그의 작업세계는 더없이 견고해졌다. 올봄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 역시 예술적 시도의 일부다.

각각 다른 공간에 놓인 조각과 회화는 서로의 배경과 서사로 충실히 기능한다. 언젠가 어느 해안가에서 있던 청석 조각 사진을 본 적 있기 때문인지, 나는 회화 속 태양이 뜬 하늘과 수평선을 배경으로 수녀와 수도승 조각이 선 장면을 결합해 연상하기에 이르렀다. 위에서 언급한 고전 <바다의 수도승>의 21세기 버전이 내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려지는 절묘한 상황이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동시에 새로운 조각을 선보일 때, 조각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념에 더욱 강력하게 자리 잡는다"는 걸 이미 경험한 작가는 전시 제목인 «넌스 앤 몽크스 바이 더 씨»의 문제의 '바다'를 이 항구도시로 설정하는 묘수를 발휘했다. 더욱이 회화 작업군인 이른바 '매티덕' 연작의 존재감까지 모두 중의적으로 담아내는 이 제목은 서울과 부산 사이 5백km가 넘는 거리감을 일시에 자기 예술세계의 스펙트럼으로 편입시킴으로써, 현대미술의 가장 큰 미덕인 함축성, 상징성, 관념성 등을 영리하게 과시한다.

매티턱은 작가의 집 겸 작업실이 위치한 뉴욕 롱아일랜드의 지명이다. 헤겔은 프랑스혁명 중에 신문을 읽는 행위로 아침 기도를 대신했다지만, 론디노네는 코로나 시국에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의 시간을 보냈다. 시를 쓰고,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보는 등 혼자만의 시간에 몰두하던 론디노네는 특히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해 질 녘의 풍경을 수채화로 그려냈다. 하늘과 바다, 그 사이의 태양은 계절과 날씨, 시간대에 따라 시시각각 형태를 달리하고, 작가의 감정에 따라 심상도, 그 색도 달라진다. 그의 작업 중 가장 사적인 순간에 탄생한 직관적인 이 회화는 오직 보기 위해 존재하는 작품이다. "말로 표현하는 대신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예술가는 무엇보다도 눈앞에 있는 것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고백은 이 그림 앞에서 더 진솔하게 읽힌다.



스위스 출신의 현대미술가, 우고 론디노네 Photo: Brigitte Lacombe

우고 론디노네의 작업에는 공백이 많다, 기쁜 자든, 슬픈 자든, 어떤 심정이든 진입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과 심리적 상태야말로 그의 작업을 가장 정확히 해석하는 이론이 된다. 동일한 눈높이로 걸린 일련의 회화들이 '내 시간의 초상'으로 다가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가로 30~40cm의 작은 그림들이 기교 없이 배치되어 있기에, 무한 반복되는 시간 사이에 놓인 느낌이다. 거대한 회화가 보는 이의 시선을 캔버스 안에 포획함으로써 작품 안의 또 다른 공간을 상상해낼 압도감을 선사한다면, 일상성에 빛나는 작은 회화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대로, 정직하게 반영한다. 우리의 시선은 파노라마처럼 연속적일 수 없다. 딱 내 시야만큼 분절된 술한 장면들이 나의 사유와 인식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연결되는 것이다. 시각예술가 제니 오델이 책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에서 썼듯, "우리가 가까이 보려고 하고 우리에게 볼 능력이 있을 때만 이 세상에는 '볼 것이 정말 많다.'" 우고 론디노네가 그려낸 황혼의 풍경은 내 눈에 '익숙한 환경도 우리가 미술 공간에서 보는 신성한 작품만큼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음'을 일러준다. 보는 데도, 느끼는 데도, 자신만의 '예술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 그림들은 세상에서 유일한 이름을 가진다. 작품이 완성된 날짜를 예컨대

'siebterfebruarzweitausendundzweiundzwanzig', 즉 '이천이십이년이월칠일'로 적어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이 풍경을 마주한 찰나를 영원으로 기록하고자 염원하는 방식은 구름 연작이나 풍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론디노네에게 자연과 우주, 시간은 동의어이며, 그저 흘러가버릴 지금을 기록한다는 건 곧 열망과 욕구, 정서적 상태를 마주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자연의 어느 한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과 내 내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같은 것처럼. 그림 사이사이 회색의 텅 빈 벽이 자리하는 듯, 마법 같은 순간 사이사이에는 지리멸렬하거나 지긋지긋하거나 절망스러운 삶이 있다. 오늘과 내일 사이의 또 다른 시공간, 깊은 감각으로 보고 느껴야만 비로소 존재하는 순간이 있다. "일기를 쓰듯 우주를 기록한다"는 론디노네에게도, 그의 작품 앞에 선 우리에게도 "이 계절, 이 하루, 이 시간, 이러한 풀의 소리, 이렇게 부서지는 파도, 이 노을, 이러한 하루의 끝, 이 침묵"은 공평히 도래한다. 이 작은 프레임 밖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자연의 풍경이 위대하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심적 풍경'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자연과 인간의 내적 자아 사이의 탐구"라는 임무를 받고 온 수녀와 수도승은 절절히 성찰해야 하는, 가장 난해하고도 고유한 우리의 우주에 사색의 에너지를 채우고는 홀연히 이곳을 떠날 것이다.

※ 우고 론디노네의 «nuns and monks by the sea»전은 국제갤러리 서울과 부산에서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열린다.

윤혜정은 국제갤러리 이사로 활동 중이며, 예술에 관한 다양한 결의 글과 인터뷰를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